

권광석 우리은행장 '고고 챌린지' 동참

권광석 우리은행장이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인 '고고 챌린지'에 동참했다.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서 시작한 캠페인이다. 권 행장은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은 늘리고'라는 메시지를 우리은행 공식 SNS에 공유하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가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고 탈플라스틱 사회에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새 주인으로...향후 전망은?

“강도 높은 경영쇄신...소비자 신뢰 되찾을 것”

사모펀드 한앤컴퍼니를 새 주인으로 맞은 남양유업의 향후 전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소비자 신뢰 회복이 필요하고, 기업을 인수해 몸값을 높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날 정도의 고강도 경영 쇄신이 점쳐진다.



4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는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남양유업 오너일가 지분 53% 매각
홍원식 전 회장, 고용 안정 언급 없어
앤컴퍼니 “적극 투자·투명성 강화”
지배구조 개선 통한 기업가치 제고**

●오너 일가, 고용 안정에 대한 언급 없어

남양유업은 27일 홍원식 전 회장의 지분 51.68%를 포함한 오너 일가 지분 53.08%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양도 대상은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이며 계약금액은 3107억2916만 원이다.

이번 조치는 대리점 갑질 사태 이후 8년 만이자 4월 13일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 이후 44일 만이다. 오너 일가가 지분 매각이라는 고강도 처

방을 내린 것은 이달 홍 전 회장의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연이은 쇄신책에도 불매운동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홍 전 회장은 28일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최근 일련의 사태로 고통받는 남양유업 가족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며 “기업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남양유업 직원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최대 주주로서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안타까웠다”고 했다.

또 “제 노력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한계에 부딪

혔다. 오로지 내부 임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회사의 가치를 올려 예전같이 사랑받는 국민기업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이를 위해 고심 끝에 마지막 자존심인 최대 주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하지만 임직원의 고용 안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마지막까지 무책임한 모습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앤컴퍼니 “새로운 남양으로 거듭날 것”

남양유업을 인수한 한앤컴퍼니는 소비자 신뢰 회복을 통한 새로운 남양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집행 임원제도를 적용하고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화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집행임원제도는 의사결정과 감독기능을 하는 이사회와 별도로 전문 업무 집행 임원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제도다.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집행부의 책임경영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한앤컴퍼니의 계획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 제조, 해운, 유통, 호텔 분야에서 25건의 기업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단 한 번의 손실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품회사를 인수한 뒤 경쟁력을 키운 사례도 있다. 2013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던 웅진식품을 1150억 원에 인수해 2018년 대만 통이 그룹에 2600억 원

에 매각한 것이 그 예다.

일각에서는 남양유업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실적이 악화된 만큼, 경영효율화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져 내부 조직원들의 동요가 예상된다라는 의견도 있다.

한앤컴퍼니 측은 “그동안 기업 인수 후 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로 기업 가치를 제고해왔다”며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와 딜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새로운 남양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남양유업의 위기가 이른바 ‘오너 리스크’로 촉발됐던 만큼 사모펀드 인수로 지배구조 문제가 해결되면 조만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부도덕한 오너일가가 물러났으니 남양유업 직원, 대리점주, 거래처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매운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기대감 덕분에 28일 남양유업 주가는 전일 대비 가격상승제한폭(29.84%)까지 치솟은 57만 원에 거래를 마쳤다. 경영 쇄신에 대한 기대감에 개장 전부터 매수세가 몰리면서 장이 열리자마자 상한가로 직행했다. 남양유업이 상한가를 기록한 것은 2010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B2B 사업 비전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

CJ제일제당, B2B 브랜드 ‘크레잇’ 론칭 기존 B2B 사업 확대 개편... “새로운 먹거리 창조”

CJ제일제당이 기업간 거래(B2B·Business to Business) 사업 강화에 나선다.

이 회사는 28일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B2B 사업 비전 선포식’을 열고 “기존 B2B 사업담당을 분부로 승격·확대 개편하고, 전문 브랜드를 론칭했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을 통해 보다 빠른 의사결정과 부서 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해지면서 B2B 사업 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빠르고 정확한 트렌드 분석 기반의 메뉴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프리미엄 B2B 전문 브랜드 ‘크레잇’을 론칭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창조한다’는 의미로, 미래 식품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밥과 면 등 원미(One meal)형 제품, 수제 고기와 토핑 등 간편식 솔루션, 반조리·조리 가정간편식, 편의점 공동 개발 제품, 샌드위치 등의 스낵형 원미 등으로 구성했다.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는 “고객사와 최종 소비자가 만족시키는 제품을 바탕으로 급식, 외식, 배달식을 아우르는 식품 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라며 “B2B 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했다.

PKF서현파트너스, 초대 회장에 안만식 대표

PKF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배홍기 선임



안만식 회장 배홍기 대표

PKF서현파트너스가 안만식(이현세무법인 대표이사) 그룹 대표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했다고 30일 밝혔다.

PKF서현파트너스는 다국적 글로벌회계컨설팅

그룹인 PKF멤버십 서현회계법인과 이현세무법인, 서현ICT, 법무법인 두현이 배타적 협력관계를 통해서 차별화된 통합 회계, 세무, 법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설립했다.

조세분야 실무의 권위자인 안만식 회장은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경희대 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국제정 조사를 거쳐 2007년 이현세무법인을 창립해 조세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 법인으로 성장시켰다.

한편 PKF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배홍기 컨설팅 본부장 겸 대표를 선임했다. 배홍기 선임대표이사는 지난해 6월부터 서현회계법인의 컨설팅부문을 총괄하며 탁월한 마케팅 역량을 입증해왔다.



이마트, 과일·채소상품에 ‘재생 플라스틱 용기’ 도입

이마트가 6월 1일부터 과일과 채소상품에 재생 플라스틱 용기(사진)를 도입한다. 분리수거된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별, 세척, 가공 과정을 거친 만큼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 또 플라스틱 포장 상품 전 품목에 ‘수분리 이지필’ 라벨 스티커를 적용한다. 쉽게 떼어지는 특수 라벨로 깔끔한 제거가 가능해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용이하다. 최진일 이마트 신선탄 담당 상무는 “친환경과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기업의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작은 실천을 모아 진정한 ESG 경영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카드사 앱에서 계좌 조회·이체”...카드사, 오늘부터 오픈뱅킹 서비스

타 신용카드사 청구금도 확인 가능한 신한·KB국민·우리카드 우선 서비스

카드업계가 31일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

오픈뱅킹은 고객이 여러 금융사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으로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시중은행과 핀테크 기업 중심으로

2019년 12월 전면 시행했다. 지난해 12월 금융결제원이 정보 제공기관도 참가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면서 카드사도 소비자카드결제 대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오픈뱅킹에 합류하게 됐다.

카드사 앱에서 은행, 증권사, 상호금융 등 오픈뱅킹에 참여 중인 타 금융회사의 계좌 조회, 출금, 이체가 가능해진다. 타 신용카드사가 청구한 금액도 확인할 수 있다. 신한, KB국민, 우리카드가 31일부터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나머지 카드사들은 6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카드업계는 오픈뱅킹 서비스 참여를 마다하며,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등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마이페이먼트는 카드사, 은행, 보험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고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업이다. 마이페이먼트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지급 지시를 하는 업종이다. 종합지급결제 사업은 단일 면허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며 한꺼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을 말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더 편리한 금융사 앱을 이용하면 되는 만큼 충성 고객 확보가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특화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3350억 ‘K-바이오 랩허브 사업’, 불붙은 유치 경쟁

강원 전북 경남 제주 등 12개 지자체 참전 ‘랩센트럴’ 벤치마킹...지역 활성화 기대 커

3350억 원 규모의 바이오 창업 특화시설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에 참여하려는 지자체들의 경쟁이 뜨겁다.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27일까지 유치의향을 접수한 결과 강원, 경기, 경남, 충북, 경북, 전남, 전북, 대전, 대구, 부산, 제주, 인천 등 12개 광역 지자체가 나섰다.

K-바이오 랩허브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유명한 모더나를 배출한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 기관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한 지원 사업이다. 바이오 창업 기업이 실험·연구부터 임상실험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입주, 실험·연구, 임상·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산(산업)·학(학계)·연(연구소)·병(병원) 협력 등을 한 공간에서 종합 지원한다. 국비 2500억 원과

지방비 850억 원 등 총 3350억 원이 투입된다.

지자체들이 바이오 랩허브 유치에 열성적인 이유는 사업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큰 폭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부지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대전은 KT와 바이오 랩허브 유치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경쟁에 참전했다.

충북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인 오송을 중심으로 랩허브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천은 송도국제도시에 랩허브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경북의 포항은 바이오인노베이션센터와 지식산업센터, 포스코 체인지업그라운드 바이오벤처 입주공간 등의 인프라를 강조하고 있다.

대구도 주변에 의료관련 국책연구기관이 모여 있고 대학병원이 많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외 경남은 양산시의 부산대양산캠퍼스를 중심으로 신청을 했고, 강원은 홍천, 춘천과 공동으로 유치경쟁에 나섰다.



K-바이오 랩허브 조감도(위)와 조성·운영계획, 제9호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7월까지 후보지 1곳을 확정하고 8월 예비타당성 평가를 한다. 김재성 기자 oldfield@donga.com